“남도 종가만의 독특한 요소·차별성 확보해야”

전남도·한국학진흥원 종가심포지엄
종가 문화 계승 발전 방향성 모색
문화와 연계 경제 활성화 계기로

지난 20일 ACC에서 열린 종가 심포지엄에서는 종가의 특성을 문화와 연계해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사진은 담양 소쇄원. 〈광주일보 자료〉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종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흔히 종가를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부계친족집단의 큰집’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종가가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전남 종가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성이 내재돼 있다.

더욱이 근래에는 드라마나 영화 다양한 콘텐츠의 배경이 종가를 배경으로 제작되는 등 종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종가를 모티브로 한 콘텐츠의 창·제작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가를 모티브로 한 심포지엄이 열려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 전남도와 한국학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종가회가 주관한 ‘종가 심포지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종가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종가 문화 계승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종가의 특성을 문화와 연계해 유용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자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종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과 딜레마’라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총장은 등재 추진 강점으로는 17세기에 형성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 세련된 유교 문화의 보존, 상당수 종가 대표 및 종중원들의 지지, 제례 절차 등이 잘 수행되는 점, 종가 음식이 인류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에 선정된 점 등을 꼽았다.

반면 약점으로 종가문화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의 부재를 비롯해 일부 강력한 지지가 존재하나 지지기반이 아주 넓지 않은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종가문화의 내용과 범주에 대한 뚜렷한 합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즉 제사와 음식은 비교적 뚜렷하지만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제시하고 범주를 어느 정도 뚜렷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 총장은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보다는 상대적으로 갈등 유발 가능성이 조금 적으며 국내 합의만 잘 이루어질 경우 성공 가능성이 약간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감한 정쟁들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교한 과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남종가 역사문화 진흥 조례 제정 의미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에 소재한 전통종가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계승해 민족문화를 지키고 이의 활용을 통해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룩하고 종가의 역사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종가문화유산 생태기반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문화유산의 종가문화유산센터와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권역별 대표 종가 선정 등 소프트웨어를 정비, 종가 문화유산 보존 활용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논지였다. 아울러 종가문화유산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콘텐츠 경쟁력 강화도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쇄원 주안상.

이어 공주대 이치억 교수가 ‘종가 문화 계승 구조와 현상 및 과제’를, 신웅주 조선대 교수가 ‘남도 한옥의 공간 성격 및 건축의 독특성’을 정혜경 호서대 교수가 ‘종가 음식문화의 특징 및 유용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 ‘석학에게 묻다-남도 종가문화 계승과 발전의 길’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청주대 김홍렬 교수는 “경북 등 다른 지역 종가 활성화 사업과의 차별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남 종가만의 독특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또다른 부대 행사에서는 남도 종가 음식 전시회가 ‘남도 종가 맛과 멋!’을 주제로 진행됐다. 녹우당 다과상, 소쇄원 주안상 등 남도 종가의 접빈상 차림과 5개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김치 10종을 재현 전시해 남도 종가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종가 심포지엄이 열린 ACC 국제회의실.

상설전시실에 전시된 독널 모습.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흙으로 만든 안식처, 독널’

국립나주박물관 기획특별전, 27일~10월29일

독널(옹관)은 고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결정체다. 특히 대형 독널은 삼국시대 영산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매장시설로 지역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독널을 비롯해 출토 문화재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기획특별전 ‘흙으로 만든 안식처, 독널’을 오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널 50여 점과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비롯한 독널 출토 문화재 100여 점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빛나는 추억이 담긴 공간’은 대형 독널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지역에서 출토된 독널을 매개로 지역 문화의 독창성과 역사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다.

‘역사를 품은 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부는 독널에 대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소주제는 2개. 첫 번째는 ‘독널에 담긴 시대 모습’으로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조명하고, 두 번째 주제는 ‘노력이 깃든 독널’을 매개로 독널 제작 기법과 현대 독널 보전 방안에 대한 내용도 살펴본다.

아울러 전시 연계 체험으로 활동지와 포토존도 운영된다.

은화수 관장은 “이번 전시는 상설전시실 휴실 기간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독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죽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나아가 삼국시대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장례문화를 공유한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미술상에 정정하 작가 선정

강지수·서영기 작가 특별상

제29회 광주미술상 정정하 작가(왼쪽), 오건탁이사장.

제29회 광주미술상에 정정하 작가가 선정됐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탁)은 최근 본심을 개최해 정정하 작가를 제29회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상은 강지수(29), 서영기(39) 작가에게 돌아갔다.

회화와 설치작업을 병행하는 정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그동안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흡수와 반사’를 주제로 서울 호아드갤러리 개인전을 비롯해 ‘긴 이야기를 가진 빛의 색깔’ 개인전 등 네 차례 개인전과 아트원더우먼, S라운지×일상다반사 등 전시에 참여했다.

정 작가는 사람의 에너지를 매개로 색채로 기록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 페인트 매장에 일하면서 접하는 페인트, 레진, 건축용 자재 등의 매체를 활용해 색을 테마로 한 추상작업과 설치작업을 진행해왔다. 정 작가에게는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과 초대전 전시공간 제공, 작가와의 대화 자리 등이 마련된다.

정 작가는 “지역의 여러 원로 선생님들과 선배 미술인들이 주는 상이기에 뜻 깊다”며 “앞으로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로 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별상을 수상한 강지수 작가는 기억과 감정을 자연의 색과 연계해 평면추상작업을 해왔으며 서영기 작가는 현실 속에서 모순된 장면을 포착해 서사와 풍자가 담긴 그림을 그렸다. 두 작가에게도 2인 초대전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복돋우기 위해 원로·중견 선배미술인들이 199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지역미술 활성화 사업이다.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2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리꾼 봉만호, 판소리 장단보 채보집·주석집 첫 출간

7월1일 출판기념회, ‘보성소리 조상현류 수궁가’ 완창발표회

판소리는 서민들을 울리고 웃기면서 애환을 함께해온 민중예술이다. 조선 후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열두 바탕이 존재했다가 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흥보가 등 다섯 바탕으로 정립돼 오늘에 이른다. 지난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출신 소리꾼 봉만호(71)씨가 30여년의 각고 끝에 다섯 바탕의 판소리를 구성하는 장단보(長短譜) 채보집과 주석집(註釋集)을 국내에서 처음 출간해 화제다.

한국미술센터(관장 이일영)와 협업을 통해 발간된 채보집은 판소리 박자와 리듬, 즉 밀고 달고 맺고 풀어가는 기경결해(起輕結解)의 실체를 상세하게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설(아니리)로만 어렵게 공부해온 후학들의 길라잡이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또한 주석집은 판소리가 품고 있는 행간의 특징을 풀어내 청중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봉씨는 “변화무쌍한 창법과 고법으로 이뤄진 판소리를 익히는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다”면서 “내일의 국악을 짊어지고나갈학생들이 이 책을 빌려 우리 판소리에 대한 논리·감정적 접근을 쉽게 배우고 표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리꾼 봉만호

젊은시절 소리에 입문한 봉 씨는 조상현 명창과 그의 제자 윤상호 명창을 사사했다. 이후 판소리 장단의 채보와 사설의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독학을 통해 고대에서 오늘에 이르는 다양한 기보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세종대왕이 창안했다는 유량악보(有量樂譜·음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내는 악보)인 정간보(井間譜)에 천착, 이번 저작물을 완간하는 밑돌로 삼기도 했다.

조상현 명창은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의 표현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채보하고 정리한 업적이 놀랍다”면서 “소리를 매만지는 모든 국악인의 소중한 교과서로 크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단보 채보집·주석집

한편 봉씨는 오는 7월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문화의 집에서 출판기념회와 ‘보성소리 조상현류 수궁가’ 완창발표회를 갖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대 국악과,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선정

전남대 국악학과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대학 중 유일한 국악학과로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대학, 예술단체, 문화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해 예비예술인들에게 취업과 연계된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악학과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전통예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강의를 정규교과목(학점연계)으로 개설해 이번 사업을 수행한다. 예비예술인들이 졸업 후 마주하게 되는 현장과 공연예술계의 다양한 진로와 취업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호남학연구원이 협력기관으로 함께 한다.

국악학과는 향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교육’ 등 광주광역시, 문화기관, 교육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한 확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